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6)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②

若能言受佛語 隨師學
약능신수불어 수순사학
乃能若海之遊航 則登聖道之梯階
내가고해지신항 즉등성도지제등
誰能出不由戶 何樂由斯道哉
수능출불유호 허막유사도언

공경하게 어른을 모시며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기며 현인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하라.

博學羅什 初學小教 頂禮諸師 兼多
구마라잡 초학소교 정례반두달다
此 下敬上 謂之貴尊
차 하경상 위지귀존
能多 晚求大法 復禮博學羅什
반두달다 만구대법 복례구마라잡
此 上敬下 謂之尊賢
차 상경하 위지존현
故 周易 曰 謙 德之柄也
고 주역 월경 덕지병야

만약 부처 말씀을 잘 믿어 지니고 스승을 따라 바로 배우면
이제 고해를 재빠르게 건널 것이요 곧 성인의 길로 가는 사다리에 오를 것이다.
누군들 나갈 때 문을 거치지 않으리 요만은 어찌하여 이 도는 거치지 않으랴.

② 不折我 無以學
부절이 무이학
設文 云我 施身自謂也
설문 운아 시신자위야
華嚴 云凡夫 無智 執着於我
화엄 운범부 무지 집착어아
法華 云我慢自矜高 詭曲心不實
법화 운이만자공고 점곡심부실
由我我見 驕慢高 不親無智 妄自尊大
유집어견 교만공고 불괴무지 망자존대

구마라잡(인도스님)이 처음 스승을 배움에 반두달다(인도스님)의 발아래 엎드려 예를 올렸는데
이는 아랫 사람이 위 사람을 공경한 것이라 말하지만 높은 이를 귀히 여긴 것이요
반두달다가 뒤늦게 대승법을 배울 때 다시 구마라잡에게 예를 하니
이는 위 사람이 아랫 사람을 공경한 것이라 이른바 여진 이를 존중한 것이다.
고로 주역에 이르기를 겸양은 덕의 자루(손잡이)다 하였고

② 나를 절복치 않으면 배움조차 없

善을 보고 따르지 않으면 道와 떨어져
'나'라는 마음 꺾어야 법을 구할 수 있어

다. 설문(說文解字이라는 책)에 이르되 나
는 재물을 이룬 것이라 하고
화엄경은 범부들은 지혜가 없어 그
나에 집착한다 하며
법화경에서는 아만하여 제 스스로 높
은 체하며 아첨하고 굽은 마음이 실답
지 못하다 하였다.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니 교만은 더
욱 높아지고 지혜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망녕되이 자존자대 한다.

書 云 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能
서 운 여유불금 천하막여여 쟁능
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
여유불벌 천하막여여 쟁공
夫子曰 夫鶴高者 意益下
안자왈 부작고자 의익하
宜益大者 心益小 亦深德厚者 施益博
관익대자 심익소 역심록익후자 사익박
子賢曰 敬而無失 恭而有禮 四海之內
자하할 경이무실 공이유례 사해지내
범兄弟也
개형제야

見善不從 罔受教誨 於賢不親 去道甚遠
견선부종 망수교회 어현불친 거도심원
欲求法者 當折我心 恭默思道
욕구법자 당절아심 공묵사도
願聞妙法 以敬事長 尊師重道 見賢思齊
굴절비례 이경사장 존사중도 견현사제

경사에서 이르기를 네가 오직 자랑하
지 않으면 하늘아래 나와 닮을 게 없고
네가 오직 공격치 않으면 천하가 너
와 더불어 공을 다투지 않는다 하였다.
안자(중국 제) 나라 재상) 말하기를 무
릇 작위가 높은 이는 뜻을 더욱 낮추고
벼슬이 큰 이는 마음(욕심)을 더욱
작게하고 복이 두터운 이는 더욱 널리
배풀라 했고
자하(중국의 현인) 말하기를 공경에
는 잃을게 없고 또 공손하여 예를 갖추
면 은 세계가 다 형제가 된다 하였다.
龍眼

동의보감에도
차는 고풍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중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햇차

지리산 야생 작설차로
심신을 투명하게,
갖 북은 햇차로 더욱 깊고
선선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지리산

오로지 전통 수제차만을 저희 지리산 차천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설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고객 여러분들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주문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
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茶天地

작설차의 시배지인 지리산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차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전통 제다법 그대로 가마솥에 뒤
고 명석에 비비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참나
무 숯불이 전해주는 은근한 온도에서 오랜 경험과 육감으로 두
세 시간 정도의 열처리를 거쳐 탄생한 작설차는 은은한 향과 깊
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茶天地

본사: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50
전화 : (0595) 83-9665, 83-3478 / 팩스 : (0595) 83-9665
서울사무소 (02)934-9923 / 부산사무소 (051) 241-5051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 상 범 석

송월스님 (용운사 조실)



약력
· 1925. 3. 1 경남
합천 생
· 45년 해인사에서
훈해스님 은사로
득도
· 1~6대 중회의
원, 명봉사 김용
사 주지 역임
· 대한불교미술전
람회 시군자·서
예 대수 특선,
입선
· 시군자·서예개
인전(8회)

지난달 서울에서 교회 개인전을 가졌습
니다. 그동안 틈틈히 해왔던 작품들을 선보
인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야 평생을 선방에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붓을 들고 살아 왔습니다. 아왕 전
시회 얘기를 했으니 작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군자'를 즐겨 칩니다. 수행자가 웬 선비
의 그림을 즐겨 그리냐고 하겠지요. 사군자
는 수행의 일환으로 그리면 선화(禪畵)입
니다. 특히 매·란·국·죽은 수행자의 기
품이 살아 있어 더할나위 없는 수행의 방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그린
다'고 하지 않고 '친다'고 합니다. 이 얼마
나 명쾌한 표현입니까.
붓을 통해서 쓴 대나무를 치다보면 흔
들리던 마음도 가리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참선수행과 들어 아닌 셈이죠. 그래서 나는
작품활동을 통해 막연히 밀려오는 번뇌를
쉬 내뱉어 버립니다. 때문에 작품에는 수행
의 정도와 심리, 인격의 수준이 들어 있
습니다. 대중은 전시 작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번뇌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습
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에 걸맞는 수
행의 방안을 찾다 보면 불림없이 자기의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점집을 찾아
'어떻게 될까요'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근기에 맞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자기 자신 외에
는 어느 누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
이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현대사람들이 자
기를 모르기 때문에 점집을 찾고 스님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어
리석은 질문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의 그 무엇을 찾지 못
해서 그렇죠. 마음에 잡념이 많으면 어둡기
마련입니다. 망상심이 즉 굵듯 하게 되는
것이죠. 증생심에는 1찰라 안에 5백 생멸
(生滅)이 있습니다. 백지 5백장을 쌓아놓고
승상으로 꿰뚫을 때 종이안장 지나는 것을
1찰라라고 합니다.
이렇듯 짧은 순간에 수없는 생각이 생겼
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멸심이 없으면 마음이 한해지고, 자
기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생멸심을 없
애려면 참선, 주력, 염불 등 수행정진을 열
심히 해야만 합니다. 근기에 따라 참선을
하는 사람, 염불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등으로 나뉘지 못 수행정진의 방법이 달라

지겠죠. 그렇듯 자기 근기에 맞는 각자의
수행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고 배우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의 성품을 확충(鞏固)하게 보고 밝
혀서 부처를 이루자는데 있습니다.
혹자는 '부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같이 어떻게 부처(깨달음)를 이루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증생심은 비합리하지 못
합니다. 그런 마음은 증생이라는 굴레에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증생에게는 불성(佛

性)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불도(佛道)를 이
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자임을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주체자는 때때로 헛된 이익을 추구하
느라 괴로움을 당하죠.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을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잡념·번뇌를 끊어버
리고 수행정진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을 밝혀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무량광대

한 불발대해(佛法大海)에 나라는 고집스런
욕심의 뿌리를 세우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저절로 낙낙해지고 불호르는대로 흘러가는
데, 왜 헛되이 명리(名利)를 구하고 권세를
탐합니까. 더 잘 되려다 오히려 고(苦)를
부르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의 이치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
러워야 합니다. 잡으려고 기만 갈수록 멀어
질 뿐입니다. 그러해보면 마음이 담담해지
고, 원래의 목표도 흔들리게 되죠. 모든 일